

제작 | 극단 일터 스물두번째 창작공연

웃어요

할매

2014. 09. 17 (수) ▶ 10. 12 (일)

평일 저녁 8시, 주말 오후 5시 (월화 휴관)

장 소 일터소극장 (시민회관 옆 / 문현역 1번출구 / 범일역 2번출구)

관람료 일반 20,000원 | 초중고생 15,000원 (예매할인 25%)

문 의 051) 635-5370 | 011-9346-8982 | www.ilter.or.kr

후원 | (사)부산 민예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본 공연은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연출 이야기 >>

올 봄에 내게도 발이 생겼다.

무려 세 평.

호미로 땅을 파서 흙을 고르고, 큰 돌과 잔 돌을 주워내니 제법 발의 모양을 갖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겨우 세 평 남짓한 밭에서 무슨 돌이 그리 나오는지…….

시골의 밭 귀둥이들에 돌탑처럼 쌓여있던 돌무더기의 정체들이 짐작되었다.

상추 10포기, 들깨 5포기, 열무, 수세미, 오이 등등을 약간 심었다.

모종을 옮겨 심고 뿌리를 제대로 내릴 때까지 하루에 스무 번도 더 넘게 나의 밭을 들여다보았다.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그 아이들의 안부가 궁금했고 유달리 부실하거나

시들시들한 놈들은 따로 플라스틱 컵을 씌워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주었다.

역수같은 비가 쏟아지면 날은 물길을 낸다고 잠도 설치가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예뻐하던 흰둥이가 행여 밭을 조금이라도 파헤칠라치면 사정없이 혼을 내었다.

세 평짜리 밭과 함께 나의 봄이, 여름이 갔다.

무려 세 평이었다.

할매들의 밭은, 눈은, 그녀들의 전 생애이다.

그이들의 고운 청춘과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만한 것들과 예쁜 빌로도 한복 한 벌과 맞바꾼 훈장이다. 그 땅에 100미터 높이 송전탑이 들어선다 했다.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동물에게겐 불임, 사람에게겐 암을 유발한다. 송전탑 아래는 땅에 형광등을 쬐으면 불이 켜진다.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까지 수송하기 위해 시작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땅만 일구고 살아온 순한 촌사람들을 투사로 만들고, 평생 욕 한번 제대로 안하고 지낸 사람을 욱쟁이로 만들었다.

땅과 나무와 태양만 있으면 산다고 말하는 할매들,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천을 지키겠다는 할매들, 그 앞에 서면 미안하고 부끄럽고 작아졌다.

먼저 같은 힘이라도 보태라라 하고 가지만 매번 위로받는 쪽은 오히려 나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어찌다 한 번씩 농성천막을 도둑처럼 슬쩍 들렀다오는 우리에게 할매들은 따뜻한 밥, 통통하게 말린 곱감, 방문객들이 가져다 준 과자봉지, 장작불 훈훈한 잠자리를 주시었다.

그 곳이 싸움터인가 싶을 정도로 평화롭고 다사로운 얘기들이 오가는 시간들도 있었다. 극으로 할매들의 사무치는 그 시절을 표현할 자신은 도저히 없다. 가슴을 메는 싸움의 날들도 올릴 재주가 없다. 추상같은 기록의 증거들은 현장을 지켜온 수많은 이들의 수고로움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쩌면, 아니 사실은, 밀양을 이야기하고픈 것이 아니라 할매들을 무대로 불러내서 내가, 우리가, 그 앞에서 울고 싶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어느 밤엔가 불현듯이 치고 올라오더니 스물스물 내안에 자리 잡았다.

그래요, 할매,

낮고 낮은 목소리로 '걱정마래이, 다 잘될 끼다…….' 하시며 토닥토닥 안아 주세요.

**꼭 다음에… 꼭 안아 주세요.**

## 이야기 >>

#1



### #1. 겨울나기

명순씨의 도토리묵 맛은 인근에 짜하다.  
도토리묵을 저으면서 할매들 옛날얘기로 침이 튼다.  
처녀 적 꿈 얘기들, 아직도 마음은 이팔청춘이란다.

### #2. 돌탑

아부님하고 약속을 지킬라고, 용을 쓴다고 하기는 하는데,  
남중에 아부님 뵈모, 야야, 잘했다, 잘했다 그 말썸 들어야 되는데 싫어서...  
잘 하고 있는 긴지 모르겠십니다.

#2



#3



### #3. 연대자

청도덕 : 입맛에 맞을랑가 모리겠네예.  
이래 대접이 뽕뽕찬아서 참 낮이 안섭니다.  
앵곡덕 : 알구진 수제비 한 그릇 디리놓고, 자꾸만 오시라칸다 그지예, 호호  
명순씨 : 아이고, 더 드시이소. 향 거 꺾어놨습니다.  
청도덕 : 한 숟가락만 더 자시이소  
청도덕 : 비싸고 기한 거야 천지빠까리겠지만 이 할매들이 맹근 거니까 그저 한분  
맛이나 보라꼬예.

### #4. 밥도둑

지난 밤에 움막에 도둑이 들었다.  
저녁에 먹고 남은 수제비가 냄비 찌로 없어졌다.  
할매들은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아무 성과가 없다.  
그날 밤, 할매들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을 한다.  
밤이 되고 주위는 고요한데 움막에 침입한 남자.  
그를 잡기 위해 할매들 분연히 일어서고 한밤의 격투전이 벌어진다.  
남자를 잡고 자세히 보니 어렵פות이 눈에 익은 모습,  
바로 평발마을에 살다가 어릴 때 서울로 간 정수다.

#4



# 5



## #5. 산이 울었다

청도덕 : 그래도 우짜것노?

우리 힘만으로는 안되이까네 여도 빌어보고, 저도 빌어보고,  
이 힘도 모으고 저 힘도 모으는 기지.

명순씨 :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모른다켓는데, 오만데 떼만 데 빌어야지예.

청도덕 : 오늘 밤에 할매바우한테 손 비비러 갔다 오는 기 좋겠다.

할매들, 천막 앞을 정갈하게 다듬는다.

작은 둥근상에 정한수 한 그릇을 올린다.

## #6. 동동이

앵곡덕 : 우리 동동이 우짜지?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내달 초에 행정 대집행인가 한다 카는데  
니가 이 전쟁 중에 새끼를 덜컥 배 빼모 우짜노?  
아이고, 니가 쫘 참지.

앵곡덕 : (동동이를 보고) 그런데 애비가 누고?

청도덕 : 말해봐라

앵곡덕 : 기춘이 집, 그 똥개새끼만 아니모 된다 마.  
그 집하고 개사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된다.

# 6



# 7



## #7. 할매, 여자

청도덕 : 두 손 두 발, 네발로 짐승 맹기로 밭고랑 타고, 논두렁 간다고,  
손에는 지문도 없고 무르팍은 다 닳아뺏다칸다.

너거 한테는 아무 것도 아닐지 몰라도, 내한테는 이 땅이 자숙이고,  
내 몸띠이고, 내 청춘이다.

지발 쫘 기냥 나두모 안되것나?

앵곡덕 : 자, 바라. 눈 내리깔지 말고 바로 보라고.

와 고개 돌리노?

늘거서 쫘글쫘글해도, 내도 여자데이. 할매도 여자라고.

이 대명천지에 옷꺼정 흘랑 벗고 젓가심 다 내놓고...

이 할매들이 말한다 아이가.

송전탑은 절대로 문한다고...

## #8. 웃어요 할매

할마시들, 표정이 와 그렇는교?

시상에서 젤로 이쁜 우리 할매들, 활짝 웃으이소.

할매! 웃으이소!



# 8



# 만든 이들 »

## 연출 ·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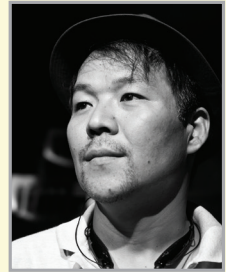
연출/대본  
김기영



작곡  
김미원



무대  
하현관



조명  
박령순



음향  
신현우



의상/소품  
김민지



포스터 그림  
김하니



연주/노래  
이효정

## 출연



청도덕  
윤순심



앵곡덕  
진선미



명순씨  
임선미



정수  
조기정

울지 말아요 할매

울지 말아요 할매

글 김기영  
곡 김미연

C G7/B Am Am7/G F Dm7 G

화 천 놀이진 달 래 꽃 따 러 가 던 길 오 늘은 - 꼬 부 랑 할 매 비 탈

Em Am F G

진 산 길 네 발 로 오 르 디 라 -

C G7/B Am Am7/G F Dm7 Gsus4 G7

이 땅 에 이 대 로 살 다 죽 고 싶 다 아 름 다 운 고 향 산 천 - 그 대 로 두 라

Fmaj7 Cmaj7 Dm G7 Am

눈 물 젖 은 - 그 목 소 리 - 무 겁 터 라 업 마 의

F G Em Am7 Dm Dm7 G

어 머 니 어 머 니 의 업 마 들 - 생 명 을 품 어 본 사 람 은 알 지 할 매 는

F G Em Am7 Dm7 Dm7 G

힘 세 지 부 서 운 게 없 다 네 - 세 상 모 든 게 내 새 끼 인 걸 - 물 러 서 지 않 겠 다 네 산 빛 나

C G Am C G F G

부 꽃 진 자 리 언 분 홍 그 늘 그 아 래 할 매 얼 굴 - 꽃 보 다 붉 네

C G F C C G F C

울 지 말 아 요 할 매 울 지 는 말 아 요 - 지 금 은 헤 어 져 도 울 지 는 마 요

## 밀양이야기 >>



- ▶ 세계 최대의 송전탑 부구도 그 아래서 살고 싶지 않다. 현재 전국의 송전탑은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약 1,700기의 송전탑이 더 지어질 예정이다. 밀양에 들어설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소도 불임 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



- ▶ 7월 21일 새벽, 기습적인 공사 강행 이후 청도 삼평리의 마지막 남은 345kv 송전탑 건설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삼평리 할매들은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경찰과 한전 직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나오고, 부상을 입은 어르신들은 병원으로 실려 간다. 또한 연대 시민들에게도 경찰의 폭력적 고착과 연행이 일상이 되고 있다. 청도 삼평리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한전의 공사 강행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전의 지팡이'로 전락했다.

-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에 철탁 조립이 완료돼 있다. 84번 송전탑은 지난 2013년 10월 2일 공사가 재개된 이후 55일 만에 첫 번째로 철탁 조립이 완료됐다.

## 기 경 훈

용접에 재능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 010-3563-7478

## 전 민 호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에서  
꿈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010-4945-1339

## 이 규 남

대저 오리농장  
(통오리, 양녕오리, 훈제오리, 슬라이스 소금구이용)  
식당 납품전문점

☎ 051-941-5245  
☎ 017-557-5245

## 구 선 희

덕천동에서 나무 레스토랑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일터 공연  
티켓 가지고 오시면 10%할인 및  
기분좋은 날에는 와인제공^^

☎ 010-5109-9518

## 장 현 수

기아자동차 부암 대리점에 근무  
합니다. 자동차 구입에 최대한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100%보장~

☎ 010-8512-9903

## 서 정 원

전망 도서출판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2-1

☎ 051-441-4445

## 김 선 영

디자인 불길  
부산 동구 범일동 830-240  
노동복지회관 3층

☎ 051-638-0777

## 오 의 석

품에 인테리어 디자인  
성실시공

☎ 011-5719-1346



## 극단 일터 / 일터소극장

#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일터의 후원회원이 되시면 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입장권과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일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와 CMS이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계좌번호

농협 905-01-266658 김선관 / 부산은행 020-01-039718-4 김선관  
601-0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40번지 지하 일터소극장  
전화 : 051)635-5370 팩스 : 051)635-9220

